



[급변하는 노동시장] 자율근무제 임금피크제 업종별 온도차 04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92.97 (-11.54)	코스닥	823.58 (-5.19)
금리 (연평균)	3.548 (+0.034)	환율 (원/달러)	1286.4 (+2.40) (14일)

퇴직연금 수익률 고작 2%... 투자사 절반은 마이너스

디폴트옵션이 온다

(上) 무늬만 연금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운용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퇴직연금 운용을 놓고 증권, 은행, 보험 등 각 금융권의 수익률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운용 회사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연금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른 현황과 미래를 짚어 본다. **(편집자주)**

퇴직연금 규모 전년비 40조 ↑ 수익은 물가 상승률도 못미처
원리금보장형은 1.35% 불과
증권사, 은행·보험보다 선방

다음 달 디폴트옵션 도입을 앞두고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퇴직연금의 규모는 증가했으나 수익률이 저조해 무늬만 연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1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은 295조 6000억원으로 전년(255조 5000억원) 대비 40조 1000억원(15.7%) 증가했다. 하지만 수익률은 2%에 그쳤다. 특히 원리금

(1분기 증권, 은행, 보험 확정급여형 비보장상품 수익률)

증권사	확정급여형(DB)		은행	확정급여형(DB)		보험사	확정급여형(DB)	
	비보장상품	22년 수익률		비보장상품	22년 수익률		비보장상품	22년 수익률
KB증권	1.65		KB국민은행	0.16		삼성화재해상보험	-10.33	
NH투자증권	-1.78		NH농협은행	-1.7		KB손해보험	-1.36	
삼성증권	-0.63		신한은행	1.38		미래에셋생명보험	-1.55	
미래에셋증권	1.21		우리은행	-0.23		푸른현대생명보험	3.32	
한국투자증권	1.33		하나은행	2.64		IBK연금보험	-2.67	

/금융감독원

보장형에 방치된 적립금만 255조 4000억원(86.4%)에 달하고 있고, 수익률은 1.35%로 저조하다. 이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3%)에도 못미치는 것.

◆증시 불안... 퇴직연금 수익률도 저조

올해 1분기 상황도 마찬가지다. 수익률이 저조한 가운데 그나마 증권사가 은행, 보험보다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급여형(DB) 원리금 비보장상품을 보면 15개의 은행, 증권, 보험사 중 1분기 물가상승률(3.8%)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관은 없다.

증권사에서는 KB증권이 1.65%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은행에서는 하나은행이 2.64%의 수익률을 올렸다. 보험사에서는 푸른현대생명보험이 3.32%를 기록했다. 반면에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한 투자기관이 8개로 절반 이상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증권사 퇴직연금은 올해 증시 불안으로 수익률이 저조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원리금 비보장상품은 주로 펀드 쪽이어서 국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빠진 것"이라며 "원리금보장상품 쪽은 최근에 금리가 올라왔지만 연초에는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수익률이 1% 초반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은행도 올해 1분기 원리금비보장상품 퇴직연금 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1분기 수익률도 전년 대비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올 1분기 보험사의 퇴직연금 수익률도 저조한 상

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의 확정급여형(DC) 원리금 비보장상품에서는 미래에셋증권 0.91%, 삼성증권 0.03%를 나타냈다. KB증권은 -1.46%를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0.22%, NH투자증권은 -0.07%를 기록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자산수익률 악화

5대 은행의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C) 원리금비보장상품은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NH농협은행(-2.09%), KB국민은행(-1.34%), 우리은행(-1.05%), 하나은행(-0.70%), 신한은행(-0.38%) 등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6면에 계속)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제4회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 '넷제로 시대, 미래식품' 푸드테크산업 혁신 모색

'넷제로(Net Zero)' 대전환 시대를 맞아 식량 부족, 기후 변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방안과 미래식품 발굴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에 식품·외식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메트로미디어는 6월 23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2 제4회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2)'를 개최합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넷제로 시대 미래식품'이란 주제로 그동안 제시해 온 미래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방안들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저니푸드(Journey Foods)의 창업자 겸 대표인 리아나 린(Riana Lynn)이 기조강연을 맡습니다. 2018년 창업한 식품 스타트업 저니푸드는 식품개발 단계부터 효율적인 식품유통까지 관리하는 AI기반 식품 관리 플랫폼 서비스기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근거해 더 나은 영양소 조합의 식품을 개발하고 나아가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지능적 서비스를 연구합니다.

첫 세션 '넷제로 시대 지속가능한 식품 트렌드'에는 김소형 스탠포드대학교 환경공학과 푸드리서치 디렉터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김소형 박사는 미래 식품 및 레스토랑과 관련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넷제로 시대를 위한 미래식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김태석 풀무원기술원 실장의 '식물성지향 미래식품' 강연에 이어 민명준 리하베스트 창업자 겸 대표의 '푸드 업사이클링', 심재민 디보선푸드 중앙연구소 소장의 '콩고기 대체육' 등 발표가 이어집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경험과 전략들을 공유할 예정이니 메트로경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센터 부장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 ◆ 주제 : 넷제로 시대 미래식품
- ◆ 일시 : 2021년 6월23일(목) 14:00~17:00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 주최 : 메트로미디어(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 주관 : 에이커스
- ◆ 등록 참가비 : 일반참가자 110,000원 대학(원)생 사전등록 시 무료(30명 제한)
- *참가확인 메일 회신 필수 및 현장 학생증 제시
- ◆ 문의 : 에이커스(070-8884-6000)
- ※ 위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연저점... 코스피 1년 7개월 만에 2500선 붕괴

개인-기관 순매수로 대응 일부 시총 상위종목은 반등

코스피지수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무너졌다. 코스피 2500선 붕괴는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이후 약 1년 7개월만이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54%포인트(0.46%) 하락한 2492.97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13일 기록한 연저점(2546.80)이 다시 한 번 낮아진 것이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2500선이 무너지면서 지수 하단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그나마 낙폭을 줄였



코스피가 전 거래일(2504.51)보다 11.54포인트(0.46%) 내린 2492.97에 장을 마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시

다. 장 초반에는 1% 이상 하락했지만 낙폭을 줄였다. 투자자별로 외국인외국인이 2761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1947억원, 개인은 387억원을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중

이목재(-2.26%), 운수장비(-1.76%), 철강금속(-1.73%), 기계(-1.48%) 등 순이었다. 또한 상승 종목은 176개, 하락 종목은 706개, 보험 종목은 47개로 집계됐다.

/이영석 기자 ysl@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정부 첫 한·미 외교 회담... "北문제 정책 최우선순위"
- ▲국회 16일째 공백, 민생은 뒷전 청문회·입법논의 '올스톱' /사진 뉴스시

-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구성... 16일 첫 회의
- ▲오세훈 "행정부 통제가 삼권분립? 야당 주장은 어불성설"



- ▲이준석 "윤대통령, 몇발자국 앞서가는 대통령 모습 보여줘" /사진 뉴스시
- ▲최재성, '尹, 양산 시위 법대로'에 "文에 악감정 있어"